

다이자야마 축제

다이자야마 축제는 눈길을 끄는 기온 축제로, 매년 7월 넷째 주 토요일에 오무타시에서 열립니다. 기온 축제는 질병 확산을 막고자 교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자야마 축제가 열리는 동안 거대한 뱀 장식 수레가 불과 연기를 내뿜으며 음악에 맞춰 마을 곳곳을 행진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 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을 거대한 뱀의 입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크면 클수록 수호 효과도 커집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17세기 초 야나가와 번(藩, 옛 일본의 행정 단위)의 영주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역 최초의 기온 신사(현재의 미이케 혼마치 기온구 신사)를 세웠습니다. 오무타 주변 지역에는 안정적인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뱀처럼 생긴 물의 신, 다이자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곤 했습니다. 1637년, 인근의 미이케 번에 닥친 자연재해로 작물이 모두 파괴되자 지배 세력이었던 다치바나 가문은 둑을 건설하여 저수지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야나가와 번은 그로부터 3년 후 신사에 축제용 장식 수레를 바쳤다고 합니다.

다이자야마 축제의 전신인 미이케 기온 축제에 관한 최초의 서면 기록은 1852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 30명이 대나무와 밧줄로 만든 장식 수레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장식 수레는 오늘날 뱀 모양 장식 수레의 원조로 여겨지며, 이 무렵에 물의 신에 대한 숭상이 기온 축제와 합쳐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1853년, 다치바나 가문은 신사에 다이자야마 장식 수레를 기증했습니다. 1893년, 혼마치 기온구 신사의 젊은이들이 이전 수레를 본떠 만든 장식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오무타시가 석탄 채굴로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형성된 광부촌 4곳에서 장식 수레를 직접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다이자야마 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광부촌 12곳에서 장식 수레를 직접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다이자야마 행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작된 장식 수레 대부분은 지금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높이는 5m, 무게는 3톤이 넘습니다. 1950년대에 사람들은 인근 치쿠호의 미쓰이 그룹이 운영하던 탄광에서 쓰인 탄광(단코) 노동요 '단코부시'에 맞춰 춤을 만들었습니다. 미쓰이가 운영하는 미이케 탄광의 광부 가족들도 이 노래를 받아들인 1960년에는 모든 행진이 하나로 합쳐져 단코부시 춤과 결합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축제에는 만여 명의 참여자가 몰리고 행렬은 2km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